

# 지역 언어 문화와 국어교육

김 수 업\*

## <차례>

1. 들머리
2. 학교교육을 되돌아보면
3. 국어교육을 되돌아보면
4. 지역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길
5. 마무리

## 1. 들머리

우리의 국어교육이 새로운 세기를 넘어오자 드디어 지역 언어 문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야 처음으로 눈을 돌린 것이기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 우리 (이론가, 실천가, 관리자) 모두가 잘 모른다. 함께 애를 쓰고 생각을 모으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서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 모이신 여러 분들이 앞으로 애써 길을 찾으실 것에 기대를 걸고, 국어교육이 지역 언어 문화에 눈을 돌린 것을 ‘참으로 반갑다’고 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한다.

그러자니 먼저 ‘지역 언어 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다시피 이 말은 ‘지역’, ‘언어’, ‘문화’, 이렇게 세 낱말을 이어

---

\* 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kse39@nongae.gsnu.ac.kr)

놓은 것인데, 하나하나 모두가 만만치 않은 말들이다. 들어온 말들이라 뜻이 우선 어름어름하여 알 듯도 하지만 붙들려고 하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 ‘언어’는 그래도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꽤 낯익은 말이고, 더구나 ‘말’이라는 우리 토박이말로 바꾸어 써도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더욱 만만하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과 ‘문화’는 마땅한 토박이 말도 없어 한결 더 어름어름하다. ‘지역’은 서양말 ‘region’ 또는 ‘local’을 뒤치면서 일본인들이 저희들 한자로 만들어 쓰는 것을 그대로 빌렸고, ‘문화’는 본디 중국인들이 ‘글로 다스려서 가르쳐 나간다(文治敎化)’는 뜻으로 썼으나 일본인들이 서양말 ‘culture’를 뒤치는 데 끌어와 쓰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이나 ‘문화’라는 말의 뜻을 붙들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중국의 한자말이나 서양말 쪽으로 가서 그 뜻넓이를 더듬어 밝혀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저들의 생각과 삶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보태는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sup>1)</sup>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하루 아침에 우리말을 새로 만들어서 학문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어쩔거나 ‘지역 언어 문화’도 서양, 일본, 중국말의 뜻을 더듬어 대강의 뜻넓이를 붙들어놓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지역 언어 문화’는 보다시피 세 낱말로 이루어졌지만, ‘지역 언어’와 ‘언어 문화’라는 두 덩이로 갈라질 수 있다. 우리가 ‘국어교육’을 고민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잡은 ‘언어’를 앞뒤 쪽으로 걸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더욱 그렇다.

- 
- 1)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남의 말을 가지고 학문을 하면 아무리 피땀흘려 애를 써도 찾아낸 사실과 논리라는 것이 마침내 남의 말 세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바람에 제 삶과 피가 되어 삶을 끌어올리는 힘이 되기 어렵다. 이래서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라틴 제국에서부터 어떻게든지 학문을 제 겨레 말로 하려고 안간힘을 쓴 나머지 오늘날까지 세계를 이끌면서 살게 되었다. 이른바 ‘자국어운동’이라는 것이 문예부흥을 일으키고 근대문화를 가꾸어낸 것이다. 우리라고 그런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루빨리 학문을 우리 토박이말로 이루어내지 못하고는 우리 스스로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네 삶을 살려서 끌어올리는 힘으로 키울 수 없다는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 언어’란 무엇인가. 우리말 ‘사투리’<sup>2)</sup>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지역 언어’라고 해서 ‘지역’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투리’라도 ‘땅과 곳’에 얽힌 사투리에 맞추고, ‘사람이나 집안이나 동아리’에 따라 쓰는 사투리는 싸잡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올바르다. 말하자면 ‘지역 언어’란 어느 ‘마을 사투리’나 어떤 ‘고장 사투리’라고 하면 뜻깊이가 가깝게 잡힌다는 말이다.

그러면 ‘언어 문화’란 또 무엇인가. ‘말로 이루어진 문화’라고 하겠으나, ‘문화’가 서양말 ‘culture’로 보든지 중국말 ‘文化’로 보든지 뜻이 너무 넓고 어름어름해서 실로 종잡기 어렵다. 서양말 ‘컬처’는 조물주가 마련해 놓은 자연에 사람이 손을 넣어서 새롭게 바꾸어놓은 것을 뜻한다. 중국말 ‘문화’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글’로 적고 쌓아서 차차 더욱 밝아진 것을 뜻한다. 이른바 ‘문명(글로 말미암아 세상 이치가 환하게 밝아지고) 진보(삶이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말로 이루어진 문화’라는 것을 대충 ‘말로써 자연을 새롭게 바꾸고 이치를 밝혀 삶을 나아지게 한 것들’ 쯤으로 뜻매김할 수 있다.

이래저래 ‘지역 언어 문화’라는 말은 뚝뚝하게 붙들여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만큼 해서 ‘어느 마을 사투리나 어떤 고장 사투리로써 자연을 바꾸고 이치를 밝혀 삶을 나아지게 한 것들’ 쯤으로 매김해보는 자리까지 왔다. 간추릴 수 있다면 “마을이나 고장의 사투리로써 이루어낸 삶” 쯤이 되겠다. 그런데 ‘고장’이란 ‘마을’을 여럿 묶으면 되니까 ‘마을’을 알

---

2) 학문하는 이들은 ‘사투리’라는 우리말을 쓰려고 하지 않고, 중국말 ‘方言’을 굳이 빌려와 쓰면서 서양말 ‘dialect’에 담긴 뜻깊이를 담아 쓰려고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중국말 ‘방언’은 ‘한 쪽 좁은 땅 안에서만 쓰이고 여러 곳에 두루 쓰이지 못하는 토속어’를 뜻하지만, 서양말 ‘다이어렉트’는 ‘동아리 안에서 남다르게 쓰는 말’이라는 뜻인지라 꼭 ‘좁은 땅’에만 쓰는 말이 아니다. ‘좁은 땅에 갇힌 말(regional·local dialect)’이 물론 중심이지만 ‘신분이나 계층 같은 동아리에 갇힌 말(class dialect)’이라든지 심지어 ‘개인이 남달리 쓰는 말(idiolect)’까지 싸잡아서 쓴다. 그러니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 학문하는 이들이 이미 많이 썼지만 담긴 속뜻을 붙들려면 중국말과 서양말 사이에서 어려어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우리말 ‘사투리’를 그대로 살려 썼으면 한다. 우리 겨레가 오래도록 써온 말이라 뜻깊이가 헛갈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말로 학문하는 길을 여는 몫도 있기 때문이다.

맹이로 본다면, 드디어 ‘지역 언어 문화’의 알맹이는 <마을 사투리로 이루어낸 삶>으로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마을 사투리’를 우리가 왜 일컫는 것인가. 한 마디로 일상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말의 뿌리를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사리 ‘국어’라고 하지만 그것의 실체를 잡으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면서 살아가는 말을 모두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난감하다. 게다가 말이란 혼자 쓰는 것도 아니기에 동아리를 바탕으로 삼아서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동아리의 첫 세포는 가정이지만 가정은 핏줄로 묶였기에 참다운 동아리라 하기 어려워 참된 뜻으로 첫 동아리는 마을이다. 그래서 마침내 ‘마을 사투리’는 살아 숨쉬는 국어의 맨 첫 바탕, 곧 국어의 뿌리 바로 그것이다. 오늘 우리가 마을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말의 뿌리와 바탕을 붙들고 그것으로 국어교육을 시작해야 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 2. 학교교육을 되돌아보면

국어교육이 지역 언어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하고 말한 까닭은 뿌리가 몹시 깊다. 까닭이 뿌리 깊다는 것은 국어교육이 여태 지역 언어 문화에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는 데에 말미암는다. 그런데 국어교육이 지역 언어 문화에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 했지만 사실 우리네 국어교육이란 것이 본디 나이가 너무 어린데 웬 뿌리가 깊단 말이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벗어날까 두렵지만, 국어교육을 싸잡는 학교교육으로 눈길을 넓혀보아야 한다. 지난날 우리네 학교교육이 ‘지역 언어 문화’, 곧 <마을 사투리>를 어떻게 다루었던 것인지 되돌아보면 ‘반가움의 깊이’를 절로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학교교육은 고구려의 태학(소수림 2, 372)과 신라의 국학(신문 2, 682)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물론 고구려의 경당(廟堂)과 신라의 화랑·원화와 백제의 박사 같은 것들도 학교교육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겠지만 서슴없이 말할 만한 자료가 너무 없다. 고구려의 태학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했는지 알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나, 그보다 삼십여 년 앞서 중국 진나라에서 태학을 세우고 유학 교육에 힘썼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중국 것을 본땔으리라는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신라의 국학에서 고려의 국자감과 조선의 성균관으로 이어진 학교교육의 결과 속은 우리가 꽤 환히 안다. 그밖에 고려의 십이 공도와 조선의 향교와 서원과 서당으로 이어진 사설·지방의 학교교육도 웬만큼 그 결과 속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 속을 꽤 알고 있는 학교교육, 그러니까 신라의 국학에서 비롯하여 조선이 무너지던 십구 세기 마지막의 서당까지 일천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네 학교교육에서 ‘지역 언어 문화’를 어떻게 다루었던가? 한 마디로, 아예 돌아볼 마음조차 먹지 않았다.

알다시피, 신라의 국학에서는 요셋말로 공통필수 과목을 『논어』와 『효경』으로 잡고, 세 가지 계열에 따라 『예기』와 『주역』, 『좌전』과 『모시』, 『상서』와 『문선』을 가르쳤다. 모조리 중국글로 쓰인 중국 사람의 삶, 곧 중국 사람의 철학, 사상, 윤리, 역사, 문학만을 가르친 것이다. 우리의 지역 언어 문화는커녕 우리 겨레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자취는 거기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이런 학교교육의 전통은 왕조가 바뀌고 지배 계층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져도 그대로 굳게 지켜졌다. 심지어 광복한 뒤에 자취만 남았던 시골 서당에서조차 우리네 삶을 교과목으로 삼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마을의 마지막 훈장은 학문이 높지 못해 ‘삼경’은 물론이고, ‘사서’에서도 『중용』과 『대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그나마 경전을 배우는 고급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소학』과 『통감』을 배우다가 그만 두었는데, 초급에서는 『천자문』을 뎀 다음 『동몽선습』과 『추구』를 거쳐 『명심보감』을 배웠다. 알다시피 초급에서 배우는 『동몽선습』과 『명심보감』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만든 책이지만, 거기에도 우리 겨레가 나날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담기지 않았다.

『천자문』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중국 글자와 중국 글말을 따라 중국 사람들의 정신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비롯하여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쪽으로만 파고 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함께 제 자신과 제 마을과 나라와 겨레를 버리고 공부한 만큼에 비례하여 중국을 우러러보며 그 쪽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교육으로 안간힘을 다하여 중국을 따라잡겠다던 사람들도 사오백 년의 세월을 지나 고려 후반으로 오면 그만 ‘작은 중국(소중화)’으로 만족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해도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제 것은 내다 버리고 남의 아류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세상인 줄로만 알던 중국이 서양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게 되었다.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충격과 혼란이 불러 일으킨 소용돌이를 제대로 가늠지 못하고, 서양 물결을 앞서 등에 업은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신세로 떨어졌다. 수천 년 동안 문화를 건네주며 가르친 일본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게 된 역사는 우리 겨레가 이 땅에 발붙여 살아온 기나긴 세월에서 가장 비참하게 굴러떨어진 자리였다. 그러는 소용돌이에서 우리네 학교교육도 이른 바 ‘신식 학교’라는 것으로 일본과 서양을 본떠 문을 열었던 것이다.

이들 신식 학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우리의 ‘지역 언어 문화’를 얼마나 다루었던가? 한 마디로,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세운 신식 학교가 외국어학교<sup>3)</sup>였다는 사실로도 그 대답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나라에서 그보다 훨씬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해서 세운 육영공원(育英公院)<sup>4)</sup>의 산파노릇을 한 민영익(閔泳翊)이 학교를 세우기 바로 앞서 보병대사로 미국을 다녀와서 했다는 다음 말에서도 우리 신식 학

3) 독일 사람 뮐렌돌프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협관’으로 앉으면서 그 ‘통상아문’의 부속 기관으로 1883년에 세운 ‘동문학(同文學)’ 또는 ‘통변학교(通辯學校)’를 말한다. 거기서는 ‘영어’와 ‘일어’와 ‘서국필산’을 가르쳤다.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0, 39쪽)

4) 1886년에 문을 열어 8년 뒤인 1894년 갑오개혁으로 비롯하는 ‘신학제’에 따라 문을 닫았다.

교의 교육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암흑계에 나서, 광명계에 갔다가, 또 다시 암흑계로 돌아왔다.” 이래서 암흑계에 해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가르치려 한 육영공원은 아예 교사부터 미국에서 모셔다가 영어, 자연과학, 수학, 경제학, 지리를 가르쳤다. 세상이 중국밖에도 넓다는 사실을 알려서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자면 알아야 할 기본을 가르쳤다 하겠으나, 보다시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공부는 터럭만큼도 없었다. ‘암흑계’는 한시바삐 벗어나야 할 세계일 뿐이고, 이를 악물고 ‘광명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신식 학교가 겨냥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날 중국을 바라보고 떠나가던 방향을 미국과 서양 쪽으로 바꾸어 다시 제 것을 버리고 남을 쫓아가야 한다고 재촉하였다.

신식 학교에서 닦은 이런 길은 일제의 침략 교육에서 더욱 넓혀지고 다져졌다. 물론 ‘국어 및 한문’<sup>5)</sup>, ‘본국 역사’와 ‘본국 지리’ 같은 교과목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교과목을 가지고 우리네 삶이 얼마나 어둠에 쌓여 있었으며 하잘데 없는 것으로 가득찼던가를 가르쳤다. 일제는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를 영구히 저들의 지배 아래 두려고 꿈꾸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지난날을 버리고 저들을 따라오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삶의 값진 것들을 찾아 나쁜 쪽으로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우리의 풍속과 역사와 문학과 예술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그들이 끌어내는 결론은 지난날의 그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연구가 고스란히 학교교육의 교과목을 채우게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학교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몸과 마음이 제 스스로와 고향과 나라와 겨레를 버리고 일본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 왕조 시대에 중국을 바라보고 떠나가던 방향을 일본 쪽으로 바꾸었을 뿐, 제 것을 버리고 남을 쫓아가는 길은 한결같은 것이었다.

학교교육의 이런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일제를 몰아내고 반 세기를 넘겼지만 우리네 학교교육은 여태 남을 쫓아가는 길을 돌이키지

5) 침략이 본궤도에 올라 총독부를 차리자 ‘일어’를 ‘국어’로 둔갑시키고, 이 과목은 ‘조선어’로 떨어졌다.

못하고 있다. 일제가 물러간 자리에 미국이 들어와 자리잡고, 저들의 힘에 군사와 정치와 경제에 빛을 지는 처지가 되면서 교육을 싹잡은 문화모두가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꼴이다. 그러니 국어교육이라는 것을 이제야 우리 손으로 해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국어교육의 틀은 애초에 미국의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틀뿐만 아니라 속살과 알맹이조차 저들의 것을 본떠다 놓고 글자와 말만 우리 것으로 하면서 그것을 국어교육이라고 여겼다.

짧지 않은 세월에 걸쳐 이처럼 얼을 빼앗긴 채 살아오고 우리네 삶을 업신여기며 돌아보지 않는 학교교육을 해왔는데, 광복한 뒤의 우리네 국어교육이라 한들 어찌 우리의 ‘마을 사투리’에 눈길을 돌릴 수 있었겠는가. 오늘 국어교육학회에서 연구의 주제를 ‘지역 언어 문화와 국어교육’으로 잡고 ‘마을 사투리’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은 이래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들머리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 3. 국어교육을 되돌아보면

광복한 다음에 우리 손으로 해온 국어교육조차 미국의 틀 안에 갇혀 버렸다는 말에 놀라고 못마땅히 여길 사람들이 있을 줄 안다. 그런 분들에게는 놀라움을 풀어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우선은 우리가 말(언어)과 말꽃(문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서양의 틀에 의지했고, 국어교육의 터전을 가늠하는 열개를 마련하는 일 또한 미국의 틀에 기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국어교육에서 말이건 말꽃이건 이론을 세우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 바탕 위에서 나는 우선 우리 국어교육이 우리 말과 우리 말의 뿌리를 얼마나 돌보지 못하고 지냈는가를 잠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가. 토박이말을 돌보지 못한 국어교육

광복한 뒤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손으로 해온 국어교육에서도 우리 토박이말은 예나 다름없이 몹쓸 푸대접을 받았다. 한자와 한문을 가르치는 교과목을 따로 세운 지가 삼십 년이 된 오늘<sup>6)</sup>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까지도 한자와 한자말을 가르치라는 주문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온다. 그러면서도 우리 토박이 낱말을 오히려 가르치라는 주문은 여태까지 다만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 토박이말이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아서 그랬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다고 본다. 아래에 보인 몇 가지 보기만으로도 토박이말이니까 모두들 잘 알아서 그랬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 절로 드러날 것이다. 토박이말은 시시하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칠 것이 못되고 한자와 한자말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이 뿌리깊은 골병에 짓눌려 우리 모두가 바보처럼 의식도 없이 그렇게 해온 것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 1) 뜻가림을 잊어버림

조국 분단, 남북 전쟁, 군사 정변, 산업 개발, 외세 종속, 이처럼 세월이 소용돌이치는 사이에 국어교육이 돌보지 않은 탓으로 토박이 낱말의 뜻가림은 더욱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국어 사전이라는 것들이 여럿이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 토박이 낱말을 제대로 살펴서 거기 담긴 속살을 드러내어 뜻풀이를 해놓은 것이 없다.<sup>7)</sup> 우선 다음에 보인 몇몇 낱말

6) 제3차 교육과정에서 한자·한문 교육을 위하여 <한문> 과목을 <국어> 과목에서 따로 갈라 세웠다.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고, 교과서도 물론 따로 만들어서 이제까지 <한문> 교육을 해오는 것이다. 제3차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놓은 때가 중학교 것은 1973년 8월 21일, 고등학교 것은 1974년 12월 31일이었으니 벌써 거의 삼십 년이 다 되었다.

7) 잠잠하던 일제 침략 시절에 조선어학회라는 작은 모임의 사람들이 피로써 마련한 원고를 광복 다음에 가다듬어 십 년(1947-1957)에 걸쳐 펴낸 『우리말 큰사전』 여섯 책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온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나날이 주고받는 입말을 알뜰히 찾아 실을 수 있는 세월이 아

들이라도 저들의 뜻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뜻가림을 한번 해보기 바란다.

- ㉔ 이름씨 : <얼>과 <넋> / <때문>과 <까닭> / <속>과 <안>
- ㉕ 움직씨 : <쉬다>와 <놀다> / <뛰다>와 <달리다> / <싸우다>와 <다투다>와 <겨루다>
- ㉖ 그림씨 : <틀리다>와 <다르다> / <기쁘다>와 <즐겁다> / <무섭다>와 <두렵다>
- ㉗ 어찌씨 : <아주>와 <매우>와 <몹시>와 <너무> / <사뭇>과 <자뭇> / <제법>과 <꽤>

뜻가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며 나설 사람이 있는가? 나는 요즘 듣는 말에서나 읽는 글에서 이런 토박이 낱말들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 온통 뒤죽박죽 쓰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찾아온 유학생이 우리 말을 배우면서 어리둥절해 가지고 묻기까지 한다. ‘틀리다’와 ‘다르다’가 틀림없이 다른 낱말인 듯한데, 아무리 귀담아 들어보아도 뒤섞어 쓰고 있어서 종을 잡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국영 방송의 공식 보도에서까지 ‘무덥다’는 말을 엉터리로 쓰고 있다. 한여름 땀약별이 내려 쪼이며 바짝 마르게 더운 날씨인데 ‘몹시 무덥다’는 것이다. 무더운 것은 비가 오려고 기압이 떨어지면서 후덥지근하게 더운 것을 말한다. 공기 속에 물기가 많아서 끈적 끈적하고 견다기 힘든 더위, 그것이 무더운 것이다. 무덥다는 낱말이 <물+덥다>로 이루어진 것인지라 그런 것임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국어교육이 우리 토박이말을 돌보지 않아 이처럼 나날이 온 국민이 두루 쓰는 낱말조차 뜻가림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니었다. 그밖에도 그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여러 사전들이 나왔고, 나라에서도 국어연구원을 차려 적지 않은 돈을 넣어서 국어사전을 만들었다. 하지만, 마을마다 기나긴 세월을 걸쳐 살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입말을 찾아 모아서 제대로 뜻가림을 해놓은 사전은 아직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 2) 넉넉함과 보배로움을 잊어버림

이름 있다는 시인이나 국어학자들조차 우리 토박이말은 낱말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쉽게 한다. 그러면서 흔히 국어사전을 들먹인다. 국어사전을 들여다보면 한자어가 70%를 넘고 토박이말은 우리 국어 낱말의 1/5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소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끝이 듣고 그런가보다 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사전이 엉터리라서 그렇지 토박이말이 모자란 탓이 아니다. 국어사전이라고 하면서 글자로 적힌 것은 낱말도 아닌 것들까지 모조리 찾아서 실어 놓고, 온 겨레가 긴 세월을 걸쳐 나날이 눈만 뜨면 입으로 주고받으며 살아오는 입말은 찾아 실으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이란 본디 입으로 주고받는 입말들을 찾아 모아 서 글자로 적고 풀이하는 것이라야 하지만, 우리네 국어사전은 어느 하나도 그렇게 마련한 것이 없다. 이런 엉터리 국어사전들과는 달리 우리 토박이 낱말은 참으로 넉넉하고 중요롭고 푸짐하다. 학문한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길조차 한 차례 주지 않고 업신여겼지만 백성들의 삶과 더 붙어 튼튼하게 살아 있었다. 우선 말의 뼈대인 이름씨와 움적씨만 잠시 보아도 그런 줄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㉗ 이름씨 낱말

씻나락 → 모 → 벼 → 짚 → 북데기  
 → 나락 → 찢쌀  
 → 우케 → 왕겨 → 등겨  
 → 미  
 → 쌀 → 싸라기  
 → 밥 → 매  
 → 고두밥  
 → 죽 → 미음

여기 보인 것은 <쌀>과 얹혀 있는 낱말들이다. 모르긴 하지만 세상

에 이만큼 여러 가지 낱말로 쌀의 세계를 속속들이 드러내는 겨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어찌 쌀뿐이겠는가. 자연 안에 흠어져 있는 온갖 풀, 꽃, 나무, 열매, 벌레, 고기, 짐승, 이런 것들의 이름을 우리 토박이말만큼 많이 만들어 쓰는 말이 없을 듯하다. 자연만 그런가. 사람이 만든 물건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농사짓고 고기잡이 하는 데 쓰는 물건에 붙은 이름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 움직씨 낱말

밥을 하다. / 죽을 쑤다. / 국을 끓이다. / 뼈다귀를 고다. / 떡을 찌다. / 감자를 삶다. / 나물을 데치다. / 약을 달이다.

우리 말에서는 어떤 것을 물과 함께 솥에 넣어서 불을 때고 삶는 노릇을 이처럼 여러 가지 낱말로 다르게 쓴다. 움직씨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만 한다면 이처럼 여러 가지 낱말로 달리 쓸 까닭이 없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비슷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과 함께 ‘솥에 넣는 것’에 따라 움직씨의 낱말을 저마다 다르게 쓰는데, 그만큼 우리 겨례는 움직임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아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 말은 마지막에 나오는 풀이말이 열쇠다. 마지막 풀이말이 이제까지 해놓은 말을 모두 싸잡아서 마침내 마무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 풀이말은 그림씨와 움직씨가 거의 말는데, 우리 말에는 움직씨와 그림씨가 그렇게 소중한 만큼 신비롭고 가멸지다.

말이란 마음이 있는 곳에서 생겨나게 마련인 것이지만, 낱말이 가멸지고 넉넉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겨례의 말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우리의 토박이 낱말이 모자란다면 여태까지는 그쪽에 마음을 주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이 바뀌어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겨례의 열에 자리잡은 말 만드는 힘이 얼마든지 새로운 낱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곳곳으로 이끌고 말 만드는 힘을 북돋우며 삶의 온갖 구석

구석에 낱말이 넉넉하도록 만드는 일이야말로 국어교육의 몫이 아닐 수 없다.

#### 나. 말의 뿌리를 돌보지 못한 국어교육

말은 푸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이 있고 꽃과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이야기하고 말을 다루려면 마땅히 뿌리에서 줄기와 잎, 꽃과 열매로 나아가며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말의 뿌리와 줄기와 잎은 제대로 거들떠보지 않은 채로 꽃과 열매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sup>8)</sup> 이러니 말을 잘 가꾸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국어교육일지라도 먼저 말의 뿌리를 복돋우며 잘 돌보아야 한다는 이치를 알 수 없었다. 그래야 한다는 이치를 몰랐으니 그런 쪽으로는 마음을 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돌리지도 못했다. 우리네 국어교육이 돌보지 못한 말의 뿌리 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값진 구석들을 돌보지 못했는지 쉽게 헤아릴 수 있다.

##### 1) 소리

말의 뿌리는 소리다. 말이란 본디 음절은커녕 음소조차 흐릿하게 조짐만 나타나던 소리 덩이에서 비롯해 차차 자라난 것이다. 음소와 음절이 또렷한 소리로 자라면서 한결 또렷하고 복잡한 뜻을 담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한 사람에게서는 어린 애기의 웅아리로부터 차차로 자라나면서 또렷한 말을 하는 것이고, 인류에게서는 수백만 년 전에 짐승의

---

8) 아마도 서양의 학문을 본뜨면서 그리 된 듯하다. 서양 사람들은 일찍이 말의 뿌리와 줄기와 잎을 살펴며 가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학문을 본뜨며 따라온 지난 세기에는 말의 꽃과 열매에만 매달려 있었다. 우리가 서양을 본뜨고 배우면서 우리네 처지를 깊이 헤아렸다면 마땅히 저들이 말의 뿌리와 줄기와 잎을 살펴며 가꾸던 그 옛날을 배워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는 오늘날 저들이 꽃과 열매에 매달려 있다고 해서 우리도 저들을 따라 꽃과 열매에만 매달렸으니 뿌리와 줄기 없는 나무에서 무슨 꽃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무리를 벗어나 사람으로 뛰어오르던 그때의 울부짖음으로부터 지나간 세월을 지나며 점점 복잡한 말을 부려쓰게 된 것이다.

㉞ 소리는 사람마다 제 것이고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래서 말의 소리는 사람됨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 우선 사람의 말소리는 핏줄에 담긴 징표를 드러낸다. 목소리가 얼마나 숨길 수 없는 내림 인가는 누구나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다.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 받는 사람의 부자나 모녀를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흔한 일일 터이다.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고스란히 딸과 아들에게로 내림을 해서 말의 소리는 핏줄을 속일 수 없는 것으로 도장을 찍어 놓는다. 그만큼 말의 소리는 사람의 사람됨을 뿌리채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말소리는 뜻으로 헤아릴 수 없는 느낌과 마음을 속속들이 남김 없이 담아낸다. 알다시피 사람의 말소리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높낮이와 썸여림과 길쭉음의 흔들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것처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갖가지 모습으로 흔들리는 목소리는 저마다 느낌과 마음 사정을 담아내는 장치다.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 사랑함, 미워함, 두려워함, 이른바 칠정이라는 느낌은 뜻이 담긴 낱말을 골라쓰는 것으로 담아내기 어렵다. 뜻보다는 먼저 목소리의 높낮이, 썸여림, 길쭉음을 바탕으로 한 온갖 소리의 흔들림으로 드러내게 마련이다.

소리와 견주어 글자는 사람됨에서 멀리 따로 떨어져 있다. 글자는 사람의 핏줄에 담긴 징표를 담을 수 없고, 느낌이나 마음의 흔들림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것은 사람의 몸과 마음 안에서 자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인공으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글자로 말을 담아서 글말이 되면 소리는 모조리 떨어져 나가버리고 매마른 뜻만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글말이란 온전한 사람됨의 터전은 많이 잃어버리고 양상한 정신의 뼈로서만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㉟ 소리는 땅에 뿌리내려 있지만 글자는 하늘에 떠 있다.

말의 소리는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자연 풍토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이 발붙여 살아가는 터전인 물과 바다에 따라 말의 소리가 달라진다. 물이라 해도 뚝과 들과 내에 따라 말의 소리는 달라지고, 뚝의 높낮이와 거세기, 들의 넓기와 기름지기, 내의 크기와 흐름, 이런 자연 풍토의 모습과 속살이 사람의 말소리를 다르게 만들어낸다. 바다라 해도 바닷가인지 섬인지에 따라 말의 소리는 달라지고, 바닷가라도 동해안과 서해안과 남해안은 말의 소리를 달라지게 한다. 해안이 밋밋하고 툭 터졌는지 부드럽게 굽이쳐서 들쭉날쭉한지 섬들이 흩어져 호수 같은지에 따라 말의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의 소리는 사람들이 뿌리내려 사는 터전으로서의 환경과 풍토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다. 그것은 같은 터전에 몸붙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아리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다. 이처럼 같은 터전에 몸붙여 살아가는 동아리의 말을 사투리라 부른다면, 사투리는 삶의 터전에 뿌리내려 살아 있는 말의 소리에 말미암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투리, 한 집안의 사투리, 한 마을의 사투리, 한 고을의 사투리, 이런 사투리아마로 삶의 터전인 환경과 자연에 자리잡은 말의 고향이다. 이들 온갖 뜨레의 사투리들이 넉넉하고 가멸지면 저절로 겨레와 나라의 말이 넉넉하고 가멸지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소리에 견주어 글자는 뿌리내려 싹트고 자라난 터전이 없다. 글자는 온갖 풍토에서 자라난 소리의 갖가지 모습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나타내는 기호다. 그것은 살아 있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의 관념이고 추상이다. 그래서 글자에다 말을 담아 글말이 되면 살아 있던 말의 터전에서 싹트고 자라난 삶의 숨결은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다. 삶의 숨결을 담고 싶어 애를 쓰더라도 소리에 말미암는 온갖 느낌과 맛을 글말로서는 도저히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다.

## 2) 입말

입말은 사람이 동물계에서 벗어나 정신의 세계로 뛰어오르던 그날<sup>9)</sup>

9) 데이아르 드 샤르댕은 빛이라는 에너지에서 비롯한 우주의 진화 과정을 지

부터 비롯했을 것이다. 사람이라는 정신의 존재가 나타나던 순간부터 입말로 삶을 이끌었으리라<sup>10)</sup> 하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람이 존재하는 마지막 그날까지 입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입말의 운명은 사람의 존재와 더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뜻이다.

우리보다는 훨씬 글말 문화에 많이 젖어 살아오는 미국 사람들도<sup>11)</sup> 말살이에서 글말 살이는 기껏 25%에 지나지 않고 입말 살이가 75%라는 조사 보고가 나와서 널리 알려졌다.<sup>12)</sup> 우리네 나날의 말살이를 조사한 보고는 없지만 입말 살이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는 사실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 ㉦ 말하고 듣는 힘을 키우는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태 국어교육에서 입말의 힘, 곧 말하고 듣는 힘을 키우는 길로 들어서지 못했다. 교육과정 안에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이미 반세기를 지났지만 교실에서는 여태도 그런 힘을 키우는 걸음을 떼놓으려 하지 않는다.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서에 입말을 다루도록 마련해서 입말의 힘을 키우자고 했지만 교실에서

---

질단계(geosphere)에서 생명단계(biosphere)를 거쳐 정신단계(noosphere)로 나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정신단계의 비릇을 삼백만 년 이전에 이루어진 사람의 출현이라고 말한다.(이문호, 페이아르 드 샤르댕 연구, 허유 하기락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1972.)

- 10)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입말을 얼마 만큼 복잡하고 섬세한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비롯한 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호모 하빌리스' 때로부터, 어떤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 때로부터, 어떤 이들은 '호모 사피엔스' 때로부터 입말을 쓰기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 11) 알다시피 월터 옹은 지구 위의 사람들을 입말문화(Orality)와 글말문화(Literacy)의 두 갈래 문화 모듬으로 가르고 있는데(이기우·임명진,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미국을 포함하는 서양 사람들은 글말문화에 들어가고 우리 겨레는 입말문화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 12) 이미 해묵은 조사 보고지만, 랜킨은 듣기 45%, 말하기 30%, 읽기 16%, 쓰기 9%라 해서 입말이 75%이고 글말이 25%라 했다. 랄프는 듣기 42%, 말하기 32%, 읽기 15%, 쓰기 11%라 해서 입말을 74%라 하고 글말을 26%라 했다.(노명환·박영목·권경안, 국어과 교육론, 갑출판사, 1988, 139-140쪽.)

는 그것도 시늉만 내면서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까닭이야 얹히고 설켜졌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를 양성하면서 그 길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교단에 서 있지만, 말하고 듣는 힘을 키우는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듣는 힘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말하고 듣는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학생들에게 말하고 듣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책이나 칠판과 분필이나 환등기나 파워포인트 같은 교재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교사의 마음과 몸으로 마련해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학생들의 입에서 말을 끄집어내고, 학생들의 귀로 말이 들어가도록 하고,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바로잡아 주고, 학생들의 귀로 들어간 말을 다시 끄집어내서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가 몸과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은 쉽지만 사실 그런 일을 교육답게 제대로 하자면 교사의 능력이 여간 아니라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국어교사를 양성한 바가 없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마련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실 현장에서는 여태까지도 학생들에게 말하고 듣는 힘을 키우는 노릇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 입말 문학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입말을 돌보지 않았으니 어찌 입말 문학을 돌볼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국어교육 쪽에서 입말이나 입말 문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지내는 사이에 문학 연구 쪽에서는 입말 문학에 눈을 돌려 적지 않은 일들을 했다. 선구자들은 이미 일제 때에 힘을 쏟아 길을 열었고<sup>13)</sup>, 광복한 뒤

13) 그런 일로 손꼽을 만한 것들을 몇몇 적으면 다음과 같다. 심의린, *조선동화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 김재철, *조선연극사*, *조선어문학회*, 1933. / 박영만, *조선전래동화집*, 1940. / 이흥기, *조선절설집*, *조선출판사*, 1944. /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울유문화사*, 1947.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 최상수, *조선구비전설집*, *조선과학문화사*, 1949. / 송석하, *한국민속고*, *일신사*, 1960.

로 그런 기운은 더욱 일어났다. 지난 세기 중엽을 지나 가난과 혼란을 벗어나면서 조사와 연구가 나날이 깊고 넓어졌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학회, 단체가 다투어 입말 문학의 자료를 찾아 모으고 연구에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인류학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2책을 펴낸 일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나서서 한국구비문학대계 82책을 펴낸 일은 우리네 입말 문학의 넓고 깊은 세계를 놀랍게 드러내어서 자랑스러운 일이었다.<sup>14)</sup>

이런 자료들에 힘입어 연구는 더욱 불붙었고 곳곳에서 나름대로 제 고장의 자료를 속속들이 찾아 모으는 일들을 벌였다. 온 나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입말 문학을 연구한 석사와 박사들이 나왔고, 이렇게 연구가 깊어지면서 저절로 놀이문학, 노래문학, 이야기문학으로 갈래가 드러났다. 그뿐 아니라 문학의 뿌리인 신화가 무당의 굿 안에 본풀이라는 이름으로 적잖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알게 되었고, 그런 신화에서도 가장 깊은 뿌리라 할 '세상 생겨나는 이야기(창세 신화)'까지도 상처가 심하지만 적잖이 살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정은 이러했으나 국어교육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입말 문학의 세계를 본체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그것을 가장 철저하게 외면했고, 그러니까 교과서가 그것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더러는 그것을 마치 문학의 한쪽 구석이거나 한 것처럼 다루기도 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틈을 비집고 제 고장의 입말 문학을 다루는 수가 없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기이하다 하겠으나 그런 까닭을 밝혀보면 우리네 국어교육의 상태를 진단하는 가늠대로서 요긴할 것이다.

14) 이들 두 가지 일은 시작에서 끝까지 거진 이십 년씩 걸렸는데, 책을 펴내는 일은 한국민속종합보고서가 1969년에 전남편으로 비롯하여 1981년에 함남·함북편으로 끝냈으며, 한국구비문학대계는 1980년에 서울시 도봉구편을 비롯한 16책을 펴내고 1984년에 제주도 북제주군편을 비롯한 38책을 펴내면서 모두 82책으로 끝냈다.

#### 4. 지역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길

이제까지 되돌아본 지난날의 국어교육, 곧 토박이말을 돌보지 못한 국어교육과 말의 뿌리를 돌보지 못한 국어교육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길은 뻔하다. 이른바 지역 언어 문화, 곧 ‘마을 사투리’를 알맹이로 하는 토박이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소리와 입말이라는 말의 뿌리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거들떠보지 않았던 지역 언어를 국어교육의 바탕으로 다루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어찌하면 그런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쪽으로 길잡이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교과서를 꾸며내야 하고, 교사가 그런 교육을 할 만한 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어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학자들이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의 깃발을 우뚝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당장 우리네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학자, 이런 조건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앞길이 어둡다. 이들 조건이 제대로 바로잡혀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때는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찌 해야 하는가?

누군가가 나서서 당장 오늘 그런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열려 있지도 않은 길이며 황무지의 가시밭길임에 틀림없을 길이지만 누가 나서서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찢리면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나서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면 비로소 길이 열리고, 길이 조금씩 열리면 따라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힘입어 나타난 것임을 인류의 문화사가 똑똑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앞장서 헤쳐나갈 사람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정책가나 행정가에게서 나오기 어렵다. 아무래도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눈매에 부대끼며 몸부림하는 교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이 새로운 길을 헤친다는 것은 우리네 교육 현장의 사정에서 볼 때 너무나 고달픈 일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본분은 열려 있는 길

을 따라가는 것일지언정 없는 길을 열면서 나가는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없는 길을 새로 찾아 열어야 하는 일은 마땅히 학자의 몫이다. 이른바 국어교육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는 말이다. 교사든 학자든 그렇게 나서는 분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귀뜸하는 셈치고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국어교육에서 내용의 두 영역을 이루는 일상의 말과 예술의 말로 갈라서<sup>15)</sup> 잠시 이야기해보기로 한다.

### 가. 일상의 말

일상의 말이란 나날이 우리가 눈뜨면 주고받는 말이다. 가족들끼리 주고받고, 이웃 사람들과 주고받고, 마을 사람들과 주고받는 일상의 말을 여태까지 우리는 국어교육의 교재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학교에만 들어가면 나날이 주고받는 현실의 말과는 다른 말을 배우도록 마련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말, 학교에 오면서 친구들과 주고받는 말은 교실에 들어서서 교과서를 펴면 곧장 따로 접어두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는 모든 국민에게 얼마 쯤씩은 낯설 수밖에 없는 표준어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표준어가 쓸 데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어란 서양에서 이른바 ‘국가주의’라는 사회·정치 사상이 판치던 지난날에 높이 내세워진 것이다.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 튼튼히 굳히려면 무엇보다도 하나의 표준어를 마련해서 철저하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상이 제국주의로 이어지고 다시 사회주의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바뀌어

15) 지금 우리는 국어교육의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이렇게 여섯 영역으로 나눈다. 이런 영역 인식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제6차를 거쳐 제7차까지 내려왔으니 아주 굳어진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영역 구분은 논리에서도 옳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리에서도 나쁘다고 본다. 그리고 언어(일상 국어)와 문학(예술 국어)의 두 영역을 삶과 얹으로 갈라서 영역으로 잡아야 바람직하게 국어교육의 내용을 싸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수업, 국어교육의 길, 나라말, 2001, 146-158쪽.)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이십 세기 초엽을 지나면서 서양에서는 하나의 표준어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표준어를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의 얼과 삶을 열어주고 북돋우기보다 오히려 닫아걸고 내리누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들이 서로 거침없이 말을 주고받도록 하자면 표준어 교육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먼저 나날이 주고받으며 사는 사투리를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람됨을 가꾸는 데서도 나날이 눈뜨면 주고받는 토박이 사투리를 넉넉하고 푸짐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얼과 삶이 가멸지게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힘을 가꾸는 데서도 온 나라 곳곳의 토박이 사투리를 넉넉하고 푸짐하게 키워야 표준어가 가멸져서 국민의 정신이 드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마땅하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어교육을 그런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온 나라 곳곳마다 제 지역의 토박이 사투리를 국어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알다시피 학교마다 자리잡은 그 지역의 삶을 교육의 재료로 삼도록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비롯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더욱 강조해 놓았다. 그런 길을 실제로 마련하는 일만 남은 셈인데, 그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교사와 학자들이 함께 손잡고 해야 한다. 자잔한 길까지 이야기할 겨를은 없으니 커다란 원칙만 말하자면 아이들이 자라는 데 맞추어 지역을 넓혀나가는 가늠을 세워야 하겠다. 일테면 다음과 같은 기늠이라도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 1) 초등학교 낮은 세 학년 :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말소리, 음운, 음절, 낱말, 형태, 통사, 의미.
- 2) 초등학교 높은 세 학년 : 우리 고을 사람들의 말소리, 음운, 음절, 낱말, 형태, 통사, 의미.
- 3) 중학교 세 학년 : 우리 지방 사람들의 말소리, 음운, 음절, 낱말, 형태, 통사, 의미.

별써 짐작하겠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안에서 토박이 사투리 교육을 일단 끝내게 하자는 뜻이다. 그렇다고 중학교까지 온통 토박이 사투리로만 국어교육을 채우자는 것도 물론 아니다. 온 나라를 겨냥하는 국가 차원의 교과서로서도 국어교육을 하면서 곳곳의 지역 사투리를 교재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표준어 교재와 사투리 교재의 비율은 가늠해 두어야 하겠는데 그 또한 위의 세 등급에 따라 비율을 달리 가늠해야 마땅할 것이다. 일테면, 초등학교 낮은 학년에서는 사투리를 100%→90%→80%씩 하고, 초등학교 높은 학년에서는 다시 70%→60%→50%씩 하고, 중학교에서는 40%→30%→20%씩 하는 것으로 잣대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온전히 표준어로만 국어교육을 한다 해도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 나. 예술의 말

예술의 말이란 물론 문학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문학이라 하면 글로 쓴 글말 문학만을 머리에 떠올리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문학이라면 글말 문학과 입말 문학을 모두 싸잡아야 한다는 사실이 이 십 세기 중엽에 들어오면서 이미 온 세상 문학 전문가들에게 두루 알려졌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입말 문학이야말로 문학의 바탕이며 줄기이고 글말 문학은 거기서 벌어나온 가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온 나라 곳곳의 토박이 사투리로 이루어진 예술의 말을 국어교육의 재료로 끌어들일 적에도 입말 문학을 바탕으로 잡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프로이트가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모여 앉아 벌이는 소꿉놀이는 나무랄 데 없는 예술 행위다. 사람의 열 안에 깊숙이 자리잡은 예술 행위의 본능이 맨 먼저 자연스럽게 모습을 갖추어 드러나는 것이 소꿉놀이이다. 이것은 예술에서도 놀이, 곧 연극으로서의 문학이다. 우리는 아직도 소꿉놀이를 두고 문학 또는 문학교육을 살피려는 연구가 없지만, 지역 문학을 국어교육의 재료로 끌어들이자고 할

때에는 맨 먼저 주목해야 할 감이 바로 소꿉놀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즐기는 입말 문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소꿉놀이에서 비롯하여 어린 아이들이 저절로 익혀서 즐기는 놀이가 수없이 많다. 그런 놀이는 모두가 말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는 거의 모두 놀이문학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들어서 단순하게 벌이는 놀이도 있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더불어 제법 복잡하게 벌이는 놀이들도 적지 않다. 놀이의 말, 곧 놀이문학은 흔히 일상의 말처럼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지지만 가락을 넣어서 노래로 주고받는 놀이노래들도 얼마든지 있다.

놀이에서 노래로 넘어오면 온 나라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은 노래들이 푸나무처럼 살아 있지만 우리네 국어교육에서는 그런 세상을 눈여겨 보려고 하지 않았다. 설사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국어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삶을 교육의 재료로 삼아 보자는 뜻을 실천해온 사람들이 있다.<sup>16)</sup> 마을에서 뿌리내려 살아가는 삶을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세우고, 그것을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든지 학교 교육의 재료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론과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천과 몸으로 길을 열자니까 저절로 노래와 이야기가 더없이 소중한 교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다.

‘소꿉장난’에서 비롯하는 놀이문학, ‘아기 어르는 소리’에서 비롯하는 노래문학, ‘꼬부랑 할머니’에서 비롯하는 이야기문학, 이런 입말 문학을 바탕으로 삼아 지역 문학을 국어교육의 교재로 삼는 길을 열려는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다. 일상의 말을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예술의 말도 그런 가늠으로 우리 마을에서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 차차로 넓혀 나가는 원칙을 세우면 된다. 온 나라 곳곳에서 지역마다 학교마다 그 땅의 말과 문학으로 교재를 만들어 국어교육을 해

16) 청주에서 문재현을 중심으로 모여 애쓰는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90-1번지 흥은모드니아파트 상가2층, 043-223-4482, [www.maul.or.kr](http://www.maul.or.kr))의 사람들이 그들이다.

나가야 한다. 그것이 말을 살리고 문학을 살리고 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참교육의 길이다.

- 1) 초등학교 낮은 세 학년 : 우리 마을의 놀이, 노래, 이야기.
- 2) 초등학교 높은 세 학년 : 우리 고을의 놀이, 노래, 이야기.
- 3) 중학교 세 학년 : 우리 지방의 놀이, 노래, 이야기.

문학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안에서 토박이 사투리로 이루어내는 입말 문학 교육을 일단 끝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학교까지 온통 입말 문학만으로 국어교육을 채우자는 것이 물론 아니다. 온 나라를 겨냥하는 국가 차원의 교과서에 실린 글말 문학으로서도 문학교육을 하면서 곳곳의 지역 사투리를 살려쓰는 입말 문학을 교재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자면 글말 문학 교재와 입말 문학 교재의 비율은 가늠해 두어야 하겠는데 그 또한 위의 세 등급에 따라 비율을 달리 가늠할 수 있다. 일테면, 초등학교 낮은 학년에서는 사투리 입말문학을 100%→90%→80%씩 하고, 초등학교 높은 학년에서는 다시 70%→60%→50%씩 하고, 중학교에서는 40%→30%→20%씩 하는 것으로 잣대를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온전히 글말 문학으로만 문학교육을 한다 해도 좋다.

## 5. 마무리

이제까지 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웬 철늦은 민족주의며 국수주의냐” 하는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바야흐로 국경은 사라졌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삶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인류가 청동기 이래 오래도록 굳게 쌓아온 나라와 겨레의 담을 헐어냈음을 뜻하고, 기나긴 세월을 걸쳐 쌓은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본디의 자연으로 시원하게 되돌아가 모두가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바뀐 세상은 요즘 우리가 나날이 몸으로 겪으면서 얼마든지 깨닫는 그대로다.

이제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인류의 꽃밭을 마련하는 세상으로 넘어왔다. 아름다운 인류의 꽃밭, 거기에는 온갖 꽃들이 저마다 남다른 제 빛깔을 뽐내며 자랑스럽게 어우러져야 한다. 크기도 가지가지, 모습도 가지가지, 빛깔도 가지가지, 이런 갖가지 꽃들이 제 나름대로 남달리 지닌 빛깔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꽃밭이라야 아름답고 넉넉한 꽃밭일 수 있다. 남이 저보다 크니까, 남이 저보다 고우니까, 남이 저보다 예쁘니까, 저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면 머지않아 꽃밭은 답답하고 지겨운 온통으로 떨어져 마침내 끝장나고 만다.

남다른 내 빛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참으로 쓸모없는 그런 세상이 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 한 마을 한 마을이 그렇고, 한 고을 한 고을이 그렇고, 한 나라 한 나라가 그렇고, 한 겨레 한 겨레가 그렇다. 저마다 저만의 빛깔을 뽐내면 남들이 우리러보며 좋아하고, 제 빛깔이 흐릿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이 왔다. 인류의 꽃밭이 넉넉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겨레의 빛깔을 드높이고, 겨레의 꽃밭이 아름답고 가멸질 수 있도록 마을의 빛깔을 드높이고, 마을의 꽃밭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빛깔을 드높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열렸다. 이래서 국어교육이 <마을 사투리>로 눈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고 올바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초록>

## 지역 언어 문화와 국어교육

김 수 업

지역 언어 문화란 사람들이 몸붙여 살아가는 마을의 말과 삶을 뜻한다. 그렇다면 국어교육은 마땅히 학생들이 몸붙여 살아가는 마을의 말과 삶을 다루어야 옳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으로 국어교육을 반세기 넘도록 해오면서도 우리가 몸붙여 살아가는 마을의 말과 삶을 다루려고 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국어교육이 어째서 여태까지 사람들이 나날이 몸붙여 살아가는 마을의 말과 삶을 돌아보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학교교육과 국어교육을 되짚으며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마을의 말과 삶을 올바른 마음으로 다루는 국어교육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국어교육의 이론가들과 관리자들과 실천가들이 더불어 힘써야 길을 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교사를 제대로 갖추어야 길이 마련되겠지만, 우선 실천가인 교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급한 대로 국어 교사들이 마을의 말과 삶을 교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일상의 말과 예술의 말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이론가인 학자들의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뜻깊은가를 이야기했다.

**【핵심어】** 언어 문화, 지역, 마을, 말과 삶, 학교교육, 이론가, 관리자, 실천가

<Abstract>

## **Language Culture in a Local Community and its Implication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Su-eup**

Language culture in a local community refers to language and life in a village community in which common folks have been getting along themselves day by day. If it holds, it would be natural,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teach students the same contents of language and life with which they are going to realize their various lives near future. Over a half century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has not paid attention at all to the very reality of language and life in a village community, although we planned all of the language programs for ourselves with no intervention outside. This paper unfolds the reason why we did not take care of our authentic language and life with which we live every second in a village community, especially reflecting on the contents of school pedagogy a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we have done so far.

This paper consecutively suggests a way how we manage to teach language and life in a village community on the right track, even from the tardy time point of now on. There may need cooperation among the personnels from main body such as theorists on language pedagogy, officials in education system, and practitioners to establish a new promising way for language and life in a village community — in other words, if we hope to attain a curriculum, a textbook, and a teacher in a fitted way. It puts an emphasis on practitioners,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who may/should run to innovate the situation, regardless of difficulties ahead. Dividing language into daily form and aesthetic one, a method is introduced how we may adopt language and life of a village community into our classroom. It would also be a careful thought to consult with theorists on the related issues in question on an occasion of scholarly conferences.

**【Key words】** language culture, local community, village community, language and life, school pedagogy, theorists, officials, practitioners